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노정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당부”

8일 건설계 양대노총 간담회…양질 일자리 창출현장안전 한 목소리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(금)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,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 -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로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김 장관은 “지난해 건설산업 최대의 난제로 평가받던 업역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면 폐지하고, '17년 54명에 달하였던 타워크레인 사상자도 '제로'로 만드는 등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.”고 밝히며,
 - “올해에도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”고 당부하였다.
-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정임금제,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등 현안 과제와 함께, 그동안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건설기계업 종사자와 설계·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방안과 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중심으로 안전 취약분야별 맞춤형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.
 -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구인·구직 관행, 과도한 노동강도 등 건설산업의 일자리 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건설분야 양대노조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각급의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향후 주요 건설산업 혁신 방안 마련과 현장안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,
- 이를 위해, 3월 중 국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노동계의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2019. 3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